

# ‘예고된 어닝 쇼크’ 전자업계, 올해는 수익성 개선 자신감

삼성전기 영업이익 전년비 68% ↓  
LG이노텍도 60.4% 쪼그라들어  
하이닉스도 1조 안팎 적자 예상

상반기 재고조정 통해 안정 기대  
전자사업 강화 수익성 완화 전망

군건했던 전자 부품 업계도 실적 악화를 피할 수 없었다. 대신 고부가가치 중심으로 사업 구조를 개선하면서 새로운 기회를 확보하는 모습이다.

삼성전기는 4분기 매출 1조9684억원에 영업이익 1012억원을 기록했다. 25일 공시했다.

시장 기대치를 다소 하회하는 결과다.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매출 19%에 영업이익 68%나 떨어졌다. 전분기와도 비슷한 수준으로 낮았다.

삼성전기는 4분기에 세트 수요 둔화 및 계절적 비수기 영향으로 IT용 MLC(적층세라믹캐패시터) 및 카메라 모듈, BGA(모바일용 패키지) 등 주요 제품의 공급이 감소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사업별로도 주력 분야인 컴포넌트 부문이 8331억원, 광학통신솔루션 부문이



삼성전기 FCBGA 출하식에 참가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오른쪽 5번째)이 임직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LG이노텍이 개발한 연속줌 카메라 모듈

6555억원으로 전분기보다 각각 10%, 27% 감소했다. 비수기에 모바일 시장 불황까지 겹친 탓이다.

올해 전망도 일단 어렵다고 봤다. 급변하는 시장에서 세트 수요 감소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불확실성에 따른 어려운 경영 환경을 예고했다.

LG이노텍도 마찬가지다. LG이노텍은 4분기 매출 6조5477억원에 영업이익 1700억원을 거뒀다고 잠정 공시했다. 전년과 비교하면 매출이 14.4% 늘었지만, 영업이익이 60.4%나 쪼그라들었

다. 매출은 시장 전망을 충족했지만, 영업이익이 절반 이상 떨어지면서 최악의 사태가 현실이 됐다.

LG이노텍 역시 4분기 중국 봉쇄로 인한 생산차질과 경기 둔화 등 여러 악재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사업 부문별로는 기관소재사업이 3915억원으로 전년보다 8% 감소한 결과로 부진을 보였다.

삼성전기와 LG이노텍을 시작으로 전자업계는 본격적으로 지난해 추락한 실적을 ‘고백’할 예정이다. 27일 LG디

스플레이와 LG전자, 31일에는 삼성전자와 다음날인 2월 1일에는 SK하이닉스가 컨퍼런스를 계획하고 있다. 이미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잠정실적을 통해 ‘어닝 쇼크’를 확정된 가운데, SK하이닉스가 1조원 안팎의 영업 적자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전자 업계가 마냥 부정적이지 않은 않다. 코로나19 엔데믹으로 일시적으로 공급 과잉이 있었지만, 상반기까지 재고 조정을 통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는 전망이 주를 이루고

있다.

특히 고부가 제품 수요는 꾸준히 이어질 전망이다. 당장 삼성전기는 4분기에 고부가 제품인 전장용 MLCC 카메라모듈, 서버와 하이엔드용 패키지 실적은 성장했다고 밝혔다.

패키지 솔루션 부문도 전년 동기 대비 0.2% 성장하며 기대감을 높였다. 고객사 요청에 따라 FC-BGA 케파 증설까지 진행하고 있다며 투자계획도 그대로 유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LG이노텍도 주력 사업인 광학솔루션사업에서는 전년 대비 매출 31.1%, 영업이익이 0.6%나 성장했다. 미래 먹거리인 전장부품사업에서도 전년 동기보다 45%나 많은 매출로 6분기 연속 성장을 이어갔다. 올해에도 공급망관리와 플랫폼 모델 중심 개발 등으로 수익성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세트 시장도 되살아날 가능성이 높다. 상반기 삼성전자가 플래그십을 새로 출시할 예정, 애플도 중국 봉쇄 해제로 생산량을 예년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LG이노텍의 연속줌 카메라 모듈 등 새로운 제품으로 수익성도 크게 완화할 전망이다.

/김재용기자 juk@metroseoul.co.kr

## 2개월 만에 성능 ↑... 초고속 모바일 D램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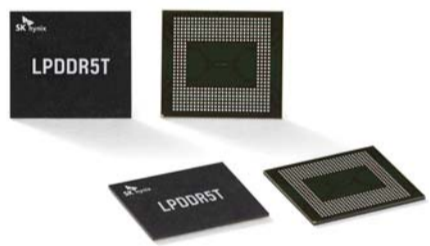
LPDDR5T 하반기부터 양산  
초저전력에 초당 77GB 처리

SK하이닉스가 모바일용 D램에 터보를 달았다.

SK하이닉스는 최근 LPDDR5T를 개발해 고객사에 샘플을 제공했다고 25일 밝혔다. 하반기부터 양산할 예정이다.

LPDDR5T는 지난해 11월 처음 공개한 모바일 D램인 ‘LPDDR5X’ 성능을 업그레이드한 제품이다. 동작 속도를 13% 빠른 초당 9.6Gb까지 높였다. 이름도 ‘터보’를 상징하는 T를 붙였다. 그러면서 전압도 국제반도체표준화기구(JEDEC)가 정한 기준 1.01~1.12V를 충족하며 초저전력 특성도 확보했다.

SK하이닉스는 10나노급 4세대(1a) 공정에 유전율이 높은 물질을 사용하



SK하이닉스는 LPDDR5T를 개발하고 하반기 양산할 예정이다.

는 차세대 공정의 HKMG도 적용해 성능을 끌어올렸다. SK하이닉스가 고객사에 제공한 LPDDR5T 16Gb 용량 패키지 제품은 초당 77GB를 처리할 수 있다.

LPDDR5T는 차세대 규격인 LPDDR6가 나오기 전까지 플래그십 모바일 제품군에서 활용될 전망이다. SK하이닉스는 5G 스마트폰 시장이 확대되는

상황, 스마트폰 뿐 아니라 인공지능과 머신러닝, 증강현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쓰일 것으로 기대했다.

SK하이닉스는 “당사는 초당 8.5Gb 속도의 LPDDR5X를 내놓은 지 불과 두 달 만에 기술한계를 다시 한번 돌파했다”며 “앞으로 이번 신제품을 기반으로 고객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용량의 제품을 공급해 모바일용 D램 시장의 주도권을 더욱 견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SK하이닉스 류성수 부사장(DRAM 상품기획담당)은 “이번 신제품 개발을 통해 초고속을 요구하는 고객들의 니즈(Needs)를 충족시키게 됐다”며 “앞으로도 차세대 반도체 시장을 선도할 초격차 기술 개발에 힘써 IT 세상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재용 기자 juk

Rated brands	Overall satisfaction	User friendliness	Design	Durability	Value for money	Camera quality	Battery and charging performance
SAMSUNG	★★★★★	★★★★★	★★★★★	★★★★★	★★★★★	★★★★★	★★★★★
Apple	★★★★	★★★★★	★★★★★	★★★★	★★★★	★★★★	★★★★
oppo	★★★★	★★★★	★★★★	★★★★	★★★★★	★★★★	★★★★
Google	★★★	★★★	★★★	★★★★	★★★★★	★★★★	★★★★

캔스타블루의 스마트폰 소비자 만족도 조사 결과

/캔스타블루

## 삼성전자 스마트폰, 아이폰 제치고 ‘1위’

호주 소비자 만족도 전분야 별 5개

삼성전자 스마트폰이 애플 스마트폰을 제치고 호주 시장에서 소비자 만족도 1위를 차지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스마트폰은 ▲전체 만족도 ▲사용자 편의성 ▲디자인 ▲내구성 ▲가격 ▲카메라 성능 ▲배터리 등 전 분야에서 만점에 해당하는 ‘별 5개’를 받았다. 해당 설문은 호주의 유력 소비자 만족도 조사업체인 캔스타 블루(Canstar Blue)에서 조사한 결과로 해당 업체는 “삼성 플래그십 모델 갤럭시S 시리즈 등을 매년 출

시하며 지속해서 최고의 스마트폰을 시장에 공급하고 있다”며 “폴더블 시리즈와 갤럭시A 등 어떤 종류의 스마트폰을 원하던 소비자 수요에 부합하는 제품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삼성전자에 이어 2위에 선정된 애플은 사용자 편의성과 디자인에서 별 5개를 받았다. 배터리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에서 별 4개를 받았고, 배터리는 별 3개로 저조한 평가를 받았다.

애플은 지난해와 재작년 이 업체 평가에서 최고의 스마트폰에 선정됐다 올해 삼성전자에 자리를 내줬다.

/허정윤 기자 zelkova

## 한번에 110개 세척... LG전자, 14인용 식기세척기 선배

디오스 오브제컬렉션 식기세척기 UP기능 통해 세척 종료음 등 제공

LG전자 식기세척기도 용량을 더 키웠다.

LG전자는 26일 14인용 디오스 오브제컬렉션 식기세척기를 출시한다고 25일 밝혔다. 한번에 최대 110개를 세척할 수 있다.

이번 제품은 하단 높이가 10cm로 12인용(15cm)보다 낮아졌다. 주방 수납 공간을 늘리기 위해 ‘걸레받이’를 낮게 시공하는 트렌드를 수용해 주방 인테리어

어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했다.

UP가전으로 새로운 기능도 추가할 수 있다. ▲전기 사용량을 표준 코스 대비 약 20% 줄이는 ‘에너지 절감 코스’ ▲소음을 표준 코스 대비 3데시벨(dB) 줄이는 ‘야간조용+ 코스’ ▲세척 종료음 등을 포함한 다양한 업그레이드가 지속 제공된다.

성능도 그대로 이어간다. 트루스팀으로 위생적으로 세척하고 트루건조로 세척후 건조까지 끝내준다. 국내 제품 중 유일하게 연수장치를 적용해 석회질을 줄여 물 얼룩도 줄였다.

관리 편의성도 높다. LG씽큐앱으로 제품 상태를 확인하는 것은 물론 30회 이상 사용하면 통살균을 제안해 청결하게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제품에 문제가 있으면 스마트 진단으로 간편하게 해결하는 방법도 알려준다.

출하가는 204만원이다. 색상은 오브제컬렉션 베이지 컬러다.

LG전자 H&A사업본부 키친솔루션 사업부장 이현욱 전무는 “주방 공간의 가치를 더하면서 주방 일의 번거로움을 혁신적으로 줄이는 차별화된 제품을 지속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

## 내달부터 부산~오사카 매일 3회 운항

에어부산, 노선 증편

에어부산이 김해공항 취항 항공사 중 유일하게 일본 주요 도시 4곳(후쿠오카, 오사카, 삿포로, 도쿄(나리타))에 항공편을 편성한 가운데 부산~오사카 노선을 증편하며 지역민 항공교통 편의 제고와 교류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 잡기에 나선다.

에어부산은 다음 달 1일부터 부산~

오사카 노선을 매일 왕복 2회에서 왕복 3회로 증편 운항한다고 18일 밝혔다.

에어부산은 현재 김해공항 출발 시간 기준 오전 8시 35분, 오후 4시 30분 등 오전과 오후에 각 1편씩 부산~오사카 노선을 매일 운항하고 있으며 2월부터는 오전 11시 25분 항공편을 추가해 오전 2편, 오후 1편 등 매일 왕복 3회 운항한다.

/허정윤 기자